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남재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⊙ 2013년 8월 취업자 수가 43만 2천 명 증가하여(전년동월대비) 2013년 들어 가장 우수한 성과

- 이는 전년동월의 고용성과(36만 4천 명 증가)를 능가하는 결과이며 2013년 들어 처음으로 기록하는 40만 명대 고용증가

⊙ 8월의 취업자 증가 역시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, 청년층은 여전히 고령층의 성과를 상쇄

- 5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가 47만 명 증가한 반면, 청년층 고용은 6만 명 감소하여 중고령층의 고용성과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
- 청년층의 고용감소는 청년인구의 증가(5만 명)에도 불구하고 계속
  (8월의 경우 청년 취업감소는 10대 후반과 20대 후반의 인구감소와도 관련)
- 다만 20대 후반의 고용감소(6.5만 명 감소)는 인구감소(7.4만 명 감소)에 육박할 정도로 커서 신규 대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여전히 어려움을 시사
- 최근 들어 20대 후반 고용률 감소세 둔화가 그나마 위안

⊙ 여성이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

- 여성 고용증가폭이 26만 6천 명에 달해 남성의 경우(16만 7천 명 증가)보다 10만 명가량이나 더 많은 상황

- 7월에도 여성 고용증가(20만 2천 명 증가)가 남성의 경우(16만 6천 명)를 능가하였으며, 8월에는 이러한 격차가 더욱 확대

⊙ 8월의 우수한 고용성과는 고용률(15세 이상) 증가로 이어져 전년동월에 비해 0.3%p 상승한 60.0%를 기록하였으며, 성별과 연령층에 따라 변화의 방향이 상이
- 남성의 고용률(71.1%)은 7월에 이어 오히려 0.1%p 감소한 반면, 여성의 고용률(49.3%)은 0.7%p나 상승
- 5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와 청년층의 고용률 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지속
- 여성의 고용률은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지만, 남성의 고용률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30대에서도 감소
- 고용률 증감 추이를 보면, 2013년 들어 달을 거듭할수록 상승세가 완연하여, 2012년 1월 이후 계속된 고용률 둔화 추세에서 벗어나는 듯한 모습

⊙ 상용직 주도의 고용증가세 지속
- 큰 폭의 상용직 고용증가(63만 9천 명 증가)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, 상용직 이외의 다른 모든 종사상 지위별 고용은 감소
- 상용직의 증가는 강한 장기 추세이나 최근의 저성장 상황에서 상용직 대폭 증가는 이례적
- 오직 20대 후반 연령층에서만 상용직이 감소(3만 3천 명 감소)하고 있으며, 3개월 미만 근속 상용직 역시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, 청년 신규채용 부진을 시사
- 상용직 증가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주도

⊙ 8월 자영업자 감소폭 둔화 역시 우수한 고용성과를 가져오게 한 요인 가운데 하나
- 자영업자 감소폭(5만 7천 명 감소)이 둔화됨에 따라 비임금근로자 감소폭(7만 4천 명 감소) 역시 줄어들어 고용증대에 기여

⊙ 민간부문 주도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 취업자 수도 증가

- 민간부문 취업자가 41만 6천 명 증가하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, 공공부문에서도 1만 6천 명 고용증가

⊙ 대기업과 제조업이 고용증가를 주도하여 왔으나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주도하는 형태로 변화

- 중소기업 고용증가폭(32만 4천 명 증가)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의 고용증가폭(10만 8천 명 증가) 둔화
- 제조업 고용증가폭이 2013년 상반기에 12만 명에 이를 정도로 높았으나, 8월에 5천 명 증가에 불과하며, 기저효과를 염두에 두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- 특히 대기업 제조업 부문 고용증가세가 2013년 들어 급격하게 둔화되어 8월 고용증가는 1만 2천 명에 불과
-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상반기 동안 20만 명 증가했고, 8월에는 38만 6천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, 3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
- 최근 서비스업 고용성과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(17만 5천 명 증가)이 주도하고 있는데, 이는 돌봄서비스의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, 최근 여성의 고용증가와도 높은 관련성

⊙ 노동시장 유량(flow) 감소세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둔화되는 모습으로 파악 가능하나, 구인구직 비율은 증가세로 보기 어려운 상황

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⊙ 2013년 6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상승률 및 상반기 평균임금 상승률이 모두 전년동기에 미치지 못하며, 8월 협약임금 인상률도 전년동기 실적에 미치지 못함

- 2013년 6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상승률은 각각 3.2%와 2.1%로서 2012년 6월의 6.2%와 3.9%보다 낮으며,

- 2013년 상반기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(4.2%)과 실질임금 상승률(2.9%) 역시 전년동기 실적(각각 6.4%와 3.6%)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
- 2013년 8월 협약임금 인상률(임금총액 기준)은 3.9%로서 역시 전년동월의 인상률인 5.1%에 미달

⊙ 2013년 6월 근로시간 및 상반기 평균 근로시간 모두 전년동기의 실적보다 감소
- 2013년 6월 근로시간(전체 근로시간)은 164.5시간으로 전년동월의 172.1시간에 비해 4.5% 감소하였으며,
- 상반기 평균 근로시간(172.6 시간) 역시 전년동기의 실적(174.3 시간)보다 감소

최근 해외 고용동향

⊙ 한·미·일의 고용실적은 대체로 우수한 반면, 유로존의 경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
- 한국과 일본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되어 있으며, 경제전체 실업률은 한국이 그리고 청년 실업률은 일본이 보다 낮은 상태
- 미국의 고용상황도 대체로 개선되었으나, 고용회복세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아직 본격화되지 않는 상황
- 반면 유로존의 실업률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승세는 주춤
- 고용률에서도 한·미·일은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인 반면, 유로존은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
- 다만 한국의 청년 고용률은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OECD 평균이나 유로존의 수준보다 크게 낮은 상황

⊙ 유로존 가운데 독일의 고용성과는 여전히 우수한 반면, PIGS 국가들의 고용상황은 우려할 만한 상황
- 독일의 고용률은 최근 73%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7%에 불과
- 반면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제전체 실업률은 26% 수준이고 청년 실업률은 60%에 육박할 정도이며, 경제전체 고용률은 50% 수준에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10% 수준에 불과